

後期中世國語의 多義語 一攷

金 泰 琨

I. 序 論

말(言語)은 自然現象과 같아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變化하는 양상도 各樣名色이다. 예를 들면, 語形이 변한 것, 意味가 변한 것. 그들 두 가지가 모두 消滅되거나 일부가 변한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되고 있는 말이란 살아 움직이는 것이므로 固定되어 不變하기란 참으로 힘들다. 본고에서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는 多義語도 變化하는 양상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를 나타낸다.

多義語(Polysemic Word)란 하나의 이름(명칭)에 여러 가지 意味를 保有하고 있는 것인데, 言語記號의 多義性은 더욱 복잡하게 되어가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知識과 經驗의 축적은 言語로써 表現해야 할 世界를 넓혀가기 때문이다.

본고는 15, 16世紀에 해당되는 後期中世國語의 多義性을 알아보는 일환으로 두번째로¹⁾ 시도되는 논문인데 中世國語의 語彙 중 多義性이 있는 것은 어

1) 첫번째는 拙稿(1988), “十五世紀國語 多義語 一攷” 柳穆相 博士 華甲論叢, 中央大出版部.

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發生原因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變遷되었는가를 알아본다. 그럼으로써 古語辭典의 뜻풀이를 정확히 할 수 있고,²⁾ 語彙의 變遷相을 살펴보는 데 一助할 수 있다.

II. 多義語의 諸問題와 發生原因

多義(Polysemy)는 하나의 이름(명칭)에 여러 가지 意味를 保有하고 있는 것인데, 그 意味 사이에는 有緣性(motivation)이 있어야 한다. 有緣性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喪失되면 우리는 그것을 同音異義語(Homonymy)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Ullmann은 <여러 개의 뜻을 가진 하나의 이름>이란 항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基本型을 제시하였다.

1. 한 뜻의 여러 局面 : 適用의 移動(shifts in application)
예) healthy climate : healthy complexion.
2. 한 單語의 여러 뜻 : 多義(polysemy)
예) human head : head of department : bridge-head.
3. 여러 單語 : 同音異義(homonymy)
예) Sea : to see : a see.³⁾

그러나, 이들 사이의 區別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Ullmann 자신도 실토했고 있다.⁴⁾ 여기서 <適用上の 轉移>와 <多義>간의 구별이 특히 문

2) 現行 古語辭典의 뜻풀이는 現代 國語辭典과는 달리, 多義 관계에 있는 어휘의 뜻풀이를 극히 일부분만을 해놓은 실정이다.

3) Stephen Ullmann, *The Principles of Semantics*.
南星祐 譯(1981), 意味論의 原理, 塔出版社, p. 124.

4) Ibid. p. 125.

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許雄(1968:145)은, “각 개인의 주관적인 語感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피력했다.

아 물론 多義의 發生은 有限한 數의 單語로 無限한 효과를 도모하려는 適用上的 轉移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多義語는 適用上的 轉移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대하여는 沈在箕 외(1984:30)의 다음의 설명이 적절하다.

“多義語가 발생할 때는 특정한 文脈에서 어떤 단어의 中心意味를 잠시 보유하고, 그 文脈에서만 짐작될 수 있는 聯想意味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는 暫定的 단계를 거친다. 추상적 개념의 단어들도 그 意味 자체가 本性的으로 不明確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多義語가 된다.”

본고에서 고찰 대상으로 하고 있는 多義性 어휘도 <適用上的 轉移>와 <多義>를 구별하기란 참으로 힘든 것이 많다. 音韻이나 文法과는 달리, 意味는 形態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研究者의 주관성이 많이 개재될 수밖에 없는데 본고도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多義의 發生原因은 適用上的 轉移 외에도,

-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의 特殊化.
- 比喩的 言語.
- 再解釋된 同音異義語.
- 外國語의 影響.⁵⁾

등으로 Ullmann은 설명하고 있다. 이들 5개의 發生原因 중 適用上的 轉移,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의 特殊化, 比喩的 言語가 흔하고, 同音異義語의 再解釋은 사례가 드물다는 것을 Ullmann은 밝히고 있는데,⁶⁾ 中世國語의 경우에서도 南星祐(1973)는 ① 適用의 移動 ② 意味의 特殊化 ③ 隱喩 ④ 換喩로 나누어

5) Stephen Ullmann, Semantics. 南星祐譯(1987). 意味論, 塔出版社, pp. 222-232.

6) Ibid. p. 232.

(2) 그스기 : ① 몰래 ② 그옥이, 은근히

① 몰래

그스기 보니(竊觀) (法 1:14)

그스기 두프며(圓序 3)

그스기 드로니(竊聞) (杜初 8:2)

② 그옥이, 은근히

後는 眞實스覺을 그스기 나토샤미라(後密顯眞覺) (圓上二之一 46)

이 ‘그스기’는 원래 ‘몰래’의 뜻으로만 쓰이다가 現語 ‘그옥이’에 해당하는 ‘은근히’의 뜻으로 쓰이어 意味分化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鄉歌 薯童謠의 解讀에서 梁柱東(1960:440)은 「他密只嫁良置古」를 “남 그스지 얼어두고”로 하고 있어 “남 몰래…”라는 意味가 이른 시기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 나조 : ① 저녁[夕] ② (歲)晚, (歲)暮

① 저녁

아침미는 虛空애 나아노다가 나조히 mre 가 자느니 (釋 13:10)

바람땀 몹겨리 아침 나조히 업도다(風浪無晨暮) (杜初 21:38)

② (歲)晚, (歲)暮

플와 나모왓 歲月스 나조히 關河애 서리와 눈괘 물갓도다.(草木歲月晚 關河霜雪清) (杜初 23:51)

時節이 오매 버스를 通達호를 아노니 hit 나조히 뜨들 疎薄히 말라(時來知宦達歲晚莫情疎) (杜初 21:12)

‘나조’는 ‘아침’의 상대어인 ‘저녁’의 뜻으로 주로 쓰였지만 ‘晚’의 뜻으로도 쓰였음을 上例 ②를 보고 알 수 있다. 즉 “세월이 늦은”, “세월이 저무는”의

뜻으로도 쓰인 轉移현상이다.

(4) 날 : ① 太陽 ② 날, 날짜 ③ 날씨

① 太陽

날와 월와(日月) (楞 2:8)

길이 오히려 멀어늘 나리 학마匹나 가 어엿브다(去路猶賒 日已西可憐)
(南明泉 上 76)

② 날, 날짜

後스날흔 分別학샤(月千 46)

나를 虛費학리로소니(費日) (杜初 7:17)

③ 날씨

날이 저기 冬면(天少冷) (宣小 6:74)

‘날’은 원래 ‘太陽’을 나타내던 것인데 ‘날짜’, ‘날씨’로도 轉移되어 오늘날엔 後者의 뜻으로 쓰이고 ‘太陽’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는다.⁸⁾

(5) 낫다 : ① 나아가다(進) ② 주다, 贈呈하다.

① 나아가다.

나스며 무르논(進退) (楞 9:72)

발 하디 너를 낫디 못학고(多足行不進) (法 2:109)

8)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 사전>에 ‘날’에 대한 풀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① 밤낮의 동안, 곧 자정에서 다음 자정까지의 동안.
- ② 하루의 낮의 동안.
- ③ 날씨.
- ④ 날짜.
- ⑤ ‘경우에는’, ‘경우이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
- ⑥ ‘때·시기·시절’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② 贈物하다

어루 가져다가 그의 닳디 못호리라(不堪持贈君) (金三 1 : 15)

(6) 녀름(짓다) : ① 農事 ② 農産物

① 農事

戊陁羅 녀름짓는 사르미라(月釋 10 : 21)

녀름지서(農事) (杜初 8 : 48)

② 農産物

沙門은 너미 지은 너르물 먹느니라(釋 24 : 22)

위의 ②에서 '農産物'의 경우, 농사 지은 결과 생기는 것으로 그냥 '녀름'이라고도 불렀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마치

○ 너희 집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에서 '집'이 '집 식구, 집안 사람'을 뜻하는 경우와 같다.

또 주지하다시피 中世國語에서 '夏'의 뜻으로 '녀름'이란 낱말이 쓰였다.

너름비 時節에 마초호야 너르미 드외야(釋 9 : 34)

너르메 길머(夏長) (金三 2 : 6)

이 '녀름'〔夏〕과 '녀름짓다'〔作農〕는 語源上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절과 농사와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15世紀에 이미 이 둘 사이는 有緣性이 喪失되어 同音異義語가 되었다.

9) 南廣祐(1962), "古代國語 造語法의 한 考察", 國語學論文集, 中央大出版部, p. 244.

(7) 뒤 : ① 世上 ② 세월

① 世上

世는 뒤라(月釋 9:10)

來世는 오는 뒤라(月釋 9:10)

주우리며 모딘 뒤예 病이 만흐며(月釋 10:84)

② 세월

過去는 디나건 뒤오 現在는 나타잇는 뒤오 未來는 아니엿는 뒤라
(月釋 2:21)

石壁에 수멧던 네넛글 아니라도(古書縱微) (龍 86)

‘뒤’는 ‘世上’을 나타내는 말인데 上例에서와 같이 ‘세월, 때’의 뜻으로도 쓰였다. 그런데 ‘世上’과 ‘세월’은 잘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다. 가령 ‘來世’라고 하면 ‘다가오는 세상’ ‘다가오는 때’라는 兩義가 가능하기 때문이다.¹⁰⁾ 이 ‘뒤’는 ‘누리’에서 변한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누리>뒤 (르탈락)¹¹⁾

(8) 드리다 : ① 데리다, 거느리다 ② 더불다

① 데리다, 거느리다

네 사름 드리샤(遂率四人) (龍 58)

天衆 드리고 다 그 고대 가(釋 9:21)

林野에 사라 한 鬼衆을 드려실시(住於林野 管諸鬼衆故) (圓下三之二 91)

10)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세월’과 ‘세상’은 同義語로 쓰이기도 한다.

11) 金亨奎(1975), 國語史概要, 一朝閣, p. 94.

/* 모리 /, /* 나리 /, / 누리 / > / : 뒤 / (世).
누릿 가운: 나곤(樂軌 動動)

② 더블다

남진 드려 드러 더러븐 이를 흐거늘(月釋 1:44)

上例와 같이 ‘드리다’는 ‘데리다’, ‘거느리다’의 뜻인 S₁과 ‘더블다’의 뜻인 S₂의 兩義가 있었다. 그런데 이 말이 意味分化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고자 ‘드리다(s₁)’는 음운변천을 일으켜 ‘데리다’로 되고, ‘드리다(s₂)’는 그 당시 同義語 ‘더블다’에 合流하게 되었다.

(9) ㄷ리다 : ① 깨다 ② 부수다 ③ 쪼개다

① 깨다

바리 ㄷ리는 쇠 거출언마른(月千 77)

소내 ㄷ린 砂盆 잡고(手把破砂盆) (金三 1: 函序5)

② 부수다

흙 무저글 ㄷ리니(破塊) (杜初 16:66)

祖師關을 ㄷ러(碎祖師關) (金三 1: 宗序1)

③ 쪼개다

ㄷ리는 대 마튼 勢는(破竹勢) (杜初 20:16)

‘깨다’, ‘부수다’, ‘쪼개다’에 대하여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 사전>에 어떻게 풀이되어 있나를 알아보자.

깨다 :

- ① (단단한 물체를) 치거나 부딪쳐서 갈라지거나 조각이 나게 하다.
- ② 이루어진 일이나 상태를 이루지 못하게 하거나 흩어서 갈라지게 하다.

부수다 :

- ① (여러 조각이 나도록) 치거나 두들겨서 깨뜨리다.
- ② (어떤 물건을) 파괴하거나 못 쓰게 만들다.

쪼개다 :

하나로 된 사물을 나누어 둘 이상으로 만듦다.

위에 열거한 셋을 보면 비슷한 意味이면서도 다르다. ‘깨다’와 ‘부수다’는 파괴되는 물체가 무엇이나에 따라 구별하여 쓰이는데, 단단한 물체이면 ‘깨다’로 표현하고, ‘부수다’는 그런 제약이 없이 쓰이는 것 같다. 그런데 위에서 예를 보인 바와 같이 현대국어에서 세 가지 語彙로 쓰일 수 있는 것이 中世國語에서는 ‘뺨(𪎐, 𪎑)리다’라는 하나의 낱말로 표현한 多義語였다.

(10) 다스리다 : ① 다스리다 ② 다듬다

① 다스리다

四天下 다스료미 아바님 𪎐디시니 (月千 48)

世間 다스플 마리며(釋 19:24)

② 다듬다

雕琢은 玉 다스릴시라(圓上 二之二 16)

이 말은 治, 理, 義의 뜻으로 주로 쓰이면서 雕琢의 意味로도 轉移되어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병을 고치다’의 뜻으로도 이 ‘다스리다’가 사용된 例가 문헌에 나타난다.

프리 能히 病 다스리는 일후미 藥草니(草能治病 名藥草) (法 3:3)

(11) 더블다 : ① 더블다, 함께하다 ② 데리다

① 더블다, 함께하다

羅喉羅 더브러 노꾼 樓 우희 오르시고(釋 6:2)

② 데리다

너희 이 앓을 더브러다가 주기라(釋 24 : 27)

깊 사르물 더브러 고기와 보리 밀 잇는 티 나아가(將家就魚麥) (杜初
25 : 40)

(12) 되다 : ① 심하다 ② 빠르다 ③ 높다

① 심하다

王人病이 되샤(月釋 10 : 5)

병이 되어든(病甚) (敎簡 6 : 30)

病이 되야(三綱 孝 31)

② 빠르다

팔워레 추풍이 된 저귀(八月秋風急) (朴初 上 18)

③ 높다

사르미 제 제귀를 막고 된소리로 ㅁ장 우르며(人自塞其耳高聲大叫) (榜
6 : 95) 된소리로 經 날고되(月釋 10 : 123)

된소리로 念佛 하야(高聲念佛) (金 139)

위에서와 같이 '되다'는 다양한 意味로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強性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 '되다'는 近代國語에서도 계속 사용되어 '심하다'는 뜻의 '된서리',¹²⁾ '독하다'는 뜻의 '된소주'¹³⁾, '(죽 등의) 물기가 적다'라는 뜻의 '되다'¹⁴⁾, '질다'라는 뜻의 '되다'¹⁵⁾ 등등 여러 意味로 轉移되어 쓰였다.

12) 된서리(嚴霜) (譯上 2)

13) 된소주(乾燒酒) (譯補 30)

14) 된죽(稠粥) (譯上 49)

15) 칠흙 되게 달혀(辟瘟新方 6)

2. 어떤 社會環境에서의 特殊化

(1) 니르다 : ① 말하다 ② 알리다 ③ 說法하다

① 말하다

늑미 ㅼ들 조차 니르산 전치오(隨他意語故)(圓上 一之一 26)

이베 니르고져 호되 마를 일흐니(口欲談而辭喪)(圓上 一之一 72)

② 알리다(告)

다시 標호야 니르시니라(復標告)(圓上 二之二 43)

標호야 니르시며(標告)(圓上 二之二 53)

③ 說法하다

한 法數를 니르샤(說諸法數)(圓上 一之一 29)

오직 人空을 니르샤(但說人空)(圓上 一之一 32)

이 '니르다'라는 말로 諺解한 原文의 漢字는 대충 語, 謂, 道, 稱, 說, 詮, 談, 云, 告, 言, 唱 등이다. 이들을 文脈에 따라 분류하면 위에서와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上例 ③에서 '法數', '人空'은 佛敎用語로 '法數'는 "佛敎의 敎義 중에 어떤 數로 이루어진 것, 四諦, 十二因緣, 大道 같은 것"이라는 뜻이고, '人空'은 '我空'이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實我が 없는 것"이란 뜻이다. 이것을 고려할 때 佛家에서는 '니르다'라는 말이 '說法하다'라는 말로 特殊化(縮小)하여 쓰인 것으로 보인다.

(2) 스승 : ① 師(선생) ② 巫(무당) ③ 和尚(스님)

① 선생

스스익그에 글 비호더니(三綱 孝35)

法 마르치느닌 스승이오 비호느닌 弟子|라(月釋 1:9)

水天을 스승 사막샤(師水天) (榜 5:74)

② 무당

넷 님그미 스승 스로불 삼가시고(前聖愼焚巫) (杜初 10:25)

세쇼개 스승이 간대로 비세원 향여(世俗巫禱) (正俗 20)

스승 튜문 네를 마초브디 아니흔 이리로다(癡巫非稽古) (杜初 12:41)

③ 스님

和尚은 스스를 니르니라(釋 6:10)

‘스승’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일컫기 때문에 직업이나 직종,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 대상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 中世國語에서도 ‘스승’을 가리키는 말로 上例에서와 같이 師, 巫, 和尚 등이 나타난다. 이는 어떤 特殊社會에서 ‘스승’(선생)이라고 하면 각각 교사, 무당, 스님 등을 각각 가리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스승’에 ‘하다’를 붙여 動詞 ‘스승하다’가 되면 ‘본 받다’, ‘섬기다’의 뜻으로 그 당시에 쓰였다.

文物을 네를 스승 향샤미 하시니(文物多師古) (杜初 6:24)

나도 또僧梁과 慧可를 스승 향간마룬 (余亦師梁可) (杜初 16:1)

虞秘監을 머리 스승 향다니(遠師虞秘監) (杜初 8:24)

(3) 암 : ① 雌 ② 女子, 아내

① 雌(암컷)

암사슴미 와 (釋 11 : 25)

암도덕 雌리(敎簡 6 : 49)

암즈 : 雌(訓蒙 下 7)

② 女子, 아내

제 겨지비 죽거늘 다룬 암홀어른대(月釋 7 : 16)

네 엇더 암홀 내야주디 아니호는다(月釋 7 : 17)

내 이제 겨집 업서 다민 홀 암홀 어엿거늘(月釋 7 : 17)

이것은 動物에 쓰이는 '암컷'이란 것에서 人間社會에서는 '女子'라는 의미로, 그리고 親戚名稱으로는 '아내'란 뜻으로 意味가 縮小되어 쓰였다.

(4) 중칭 : ① 生物의 중칭 ② 짐승 ③ 인간

① 生物의 중칭

衆生은 一切 世間엿 사르미며 하늘히며 귀는 겨시며 나는 겨시며 므렛 겨시며 무릿 겨시며 숨튼 겨슬 다 衆生이라 호는니라(月釋 1 : 11)

② 짐승(獸)

種類는 山中엿 범과 사슴갯 한 중칭의(種族者如山中虎鹿諸獸)(圓上 二之二 84)

屠子는 중칭 주기는 사르미라(圓下 二之二 10)

은 가짓 중칭의 간 먹고(百獸肝)(敎急方 下 60)

사름과 중칭괘 다 物이라(人畜成物)(楞 2 : 34)

③ 인간

菩薩이 衆生을 利케 호리니(菩薩利衆生)(圓下 二之二 10)

숨 쉬는 것은 모두 통틀어 '중심'이라고 했으나 범위를 좁혀 '짐승'을 가리켜 일컬었다. 上例 ②는 '중심'을 사람과 구별하여 짐승만을 가리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③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佛家에서는 부처의 구제의 대상이 되는 人間을 가리켜 특히 '衆生'이라고 했다.

3. 比 喩

比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隱喩이다. 隱喩는 「A는 B이다.」와 같이 직접으로 B의 속성을 A에 옮겨서 叙述하는 것이다. 「길수는 꿈이다.」라고 할 적에 「길수는 미련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隱喩도 表現手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隱喩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감각, 감정, 판단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 隱喩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下位區分이 가능하다.

- (1) 二 對象의 比較 : (동물의)다리 > 책상다리, 상다리. 수염 > 덩굴수염.
- (2) 物質的 > 精神的, 知的 : 칼 > 武力. 붓 > 文筆(生活).
- (3) 具象 > 抽象 : 손잡다 > 紐帶關係.¹⁶⁾

위의 3가지 중 세번째의 具象語의 抽象化가 가장 활발히 나타나지 않나 생각한다. 意味擴張은 具象語의 抽象化가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¹⁷⁾ 그럼 中世國語에서 나타나는 隱喩를 몇 例를 들어 살펴본다.

- (1) 그릇 : ① 그릇 [皿] ② 器具 ③ 器量

16) 崔昌烈 외(1986), 國語意味論, 開文社. p. 101

17) 成煥甲(1988), "意味의 具象化와 抽象化", 柳穆相 박사 華甲論叢, 中央大出版部, pp. 207-213.

① 그릇〔皿〕

몸엿 필 외화 그르세 담야(月千 4)

어름 다몬 그르스(杜初 20 : 49)

② 器具, 用具

大地를 다 안줄 그릇 사막샤(盡大地爲坐具) (金三 2 : 3)

筍은 고기 잡는 그르시오(楞 1 : 3)

業스그르스 身과 口와 意왜라(業具者 身口意也) (圓上二之二 12)

모미 受苦스그르시라 (身爲苦器) (法 2 : 108)

③ 器量

道力을 올오디 몬하야奇特흔 지조와 큰 그르시 다 흘러가(不全道力 奇才茂器 皆流) (楞 1 : 3)

비록 글하논 지죄 이셔도 기량이 생르고 열타오니 엇디 버스를 누릴 그르시리오(雖有文才而浮躁淺露 豈享爵祿之器耶) (翻小 10 : 1)

이 '그릇'은 원래 皿, 椀, 등 물건을 담은 用具와 器具, 세간 (세간을 나타내는 말은 近代國語에서는 '그릇(릇)버'라는 말을 사용했다. 사발과 그릇 버들 사자: 買些碗子什物(老諺下 29))등의 의미로 쓰이면서 '器量'의 뜻으로도 쓰였다고 생각된다. 現在도 '그 사람은 그릇이 크다.'라고 말할 때, 그때의 '그릇'은 '일에 처하는 기량'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이는 물건을 나타내는 具象語가 抽象的인 의미를 나타내는 抽象語로 쓰인 隱喩이다.

(2) 녹다 : ① 녹다(融解) ② 이해하다

① 녹다

더브면 노가 프리드외느니라(月釋 9 : 23)

果然히 어름 녹듯하니라(果氷釋) (杜初 24 : 13)

② 이해하다

한 疑心이 自然히 노마리라(群疑白釋) (圓上一之一 10)

굳었던 액체가 融解한다는 의미의 '主義'에서 '이해하다', '마음이 풀리다'의 뜻으로 轉移된 隱喩인데, 현대국어에서는 '몹시 반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그 여자에게 녹아 떨어지다.

그 노래에 녹아 떨어지다.

(3) 낚다: ① (옷을) 입다 ② 받다, 당하다

①(옷을) 입다

늘긴 옷 니버(月千 155)

뵈기 무든 옷 낚고(釋 6:27)

② 받다, 당하다

識이 호마 드로물 니버니(識已被聞)(榜 3:41)

히물 니베니라(金三 3:57)

善慧入德 낚스바(月千 6)

罪를 낚습고(月釋 2:72)

슬피 너교물 니베니라(蒙其傷憐而已)(杜初 25:39)

天下 | 그 福을 낚스오며(天下受其福)(內 2:95)

위의 例 ②를 보면 現代國語와 다름없이 그 당시에도 '낚다'가 '받다', '당하다'의 轉移된 의미로 폭넓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 침다: ① (물에) 잠기다 ② 열중하다, 沈心 ③ 衰退하다

① (물에)잠기다

뜨락드락호미(浮沈)(杜初 15:18)

므레 침기며 비 침느니(瀾水沈舟)(圓下 三之一 103)

② 열중하다, 沈心

드문 드문 中에 大乘 誹謗호미 잇거나(沈心中有謗大乘)(榜 8:77)

③ 衰退하다

衆生이 오란劫에 머 드며며 시혹 邪와 小에 디여 種智를 일우디 몬
호문(衆生曠劫漂沈或墮邪小 不成種智者) (圓上 二之二 23)

이 ‘들다’도 ‘물에 잠기다’라는 뜻의 具象語에서 ‘마음에 잠기다’(沈心), ‘열
중하다’의 의미인 抽象化, 그리고 ③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쇠퇴하다’의 뜻
으로도 轉移되어 쓰였다. ③에서 ‘쁘미 드며며’는 ‘漂沈’을 諺解한 것으로 ‘浮
沈’과 같은 말인데 ‘浮沈’은 ‘인생의 덧없는 변화’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5) 뜻다: ① 따스하다 ② 사랑하다 ③ 그리워하다 ④ 좋아하다 ⑤ 불쌍하다

① 따스하다

쇠송 혼되를 드순 수례 프러(取牛洞一升温酒) (救簡 1: 43)
츨기름 半 호블 드시 호야(香油半合温) (救急方 上 28)
뜻혼 수리어나 더운 프리어나(温酒熱湯) (救急方 下 94)

② 사랑하다

子息을 드스샤 正法 모르실씩(月千 125)
세흔 布施와 동은 말와 利흔 行과라(三者布施愛語利行) (圓下一之一 61)
드 슬익: 愛(訓蒙 下14)

③ 그리워하다

집 소벳 이를 뜻디 말오(莫戀家裏事) (金三 3: 24)
靑山을 오히려 뜻디 아니커니(靑山尙不戀) (金三 5: 42)

④ 좋아하다

츨 것 슬히 너기고 더운 것 드사(嫌冷愛熱) (金三 3: 52)
名利 뜻디 아닌는 사르미며(不愛名利人) (圓下 三之一 54)

⑤ 불쌍하다

可히 뜻은 王孫이 길 모해서 우눗다(可憐王孫泣路隅) (杜初 8: 1)
淒涼흔 부되 양즈를 뜻오고(淒涼憐筆勢) (杜初 8: 25)

이 ‘닷다’는 中世國語에 ‘스랑하다’, ‘괴다’와 함께 類義關係를 가지며 쓰이다가 近代國語에서는 쓰이지 않고 ‘스랑하다’나 ‘괴다’에 統合되었다.¹⁸⁾

그런데, 이 ‘닷다’는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意味를 가지고 있으나 서로 有緣性을 유지하고 있는 말인데, ‘溫’의 意味의 具象語에서 ‘愛, 戀, 憐’ 등의 意味인 抽象語로 완전히 語義變化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6) 닷다 : ① 닦다〔磨〕 ② 불리다〔煉〕 ③ 익히다

① 닦다

거우루 닷곰과 활소기 비흠괘라(磨鏡學射) (圓上一之一 113)

비록 거우루 닷다 니르시니(雖云磨鏡) (圓上二之二 40)

② 불리다

爐애 白硃砂를 닷느니(爐煉白硃砂) (金三 4:10)

③ 익히다

漸漸 닷가 漸漸 아롬과논(漸修漸悟) (圓上一之一 113)

니르산 道 닷고몬(所言修道) (圓上二之二 40)

禪을 닷나(修禪) (楞 9:15)

이 말은 ‘걸 먼을 문지르거나 흠치는 것’의 意味인 主義에서 轉移되어 쇠를 화로에 넣고 달구어 불리는 意味로도 15世紀에는 쓰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意味의 말이 近代國語에서는 ‘불리다’, ‘달호다’라는 낱말로 쓰였다.

불린 금(精金) (漢淸 311d)

달호다(燒紅) (漢靑 359c)

그리고, 上例 ③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 벌써 ‘닷다’가 ‘심신을 단

18) 趙恒範(1984), 國語類義語의 通時的 考察, 국어연구 58, 국어연구회, p. 145.

련하다', '修道하다'는 抽象化된 의미로 폭넓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7) 더럽다 : ① 不潔하다 ② 醜하다 ③ 辱되다

① 不潔하다

모미 더러브며 (月釋 7:18)

모매 더러븐 것 묻디 아니호시며 (月釋 2:59)

② 醜하다

慾心 더러부믈 여필씨 (月釋 1:35)

村野스 사르되 더러우믈 아디 못호리로다 (未覺村野醜) (杜初 15:43)

음탕호 더러운 마리며 (淫嫌) (翻小 8:21)

③ 辱되다

비록 내 몸을 앓긴들 朝廷을 더러유맨 엇더노 (縱愛身奈辱朝廷何) (翻小 9:39)

上例에서 보듯이 '더럽다'가 抽象語 '醜하다', '辱되다'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는데 現代國語에서는 '어렵고 고약하다'¹⁹⁾의 의미로까지 쓰이고 있어 多義의 擴張은 現代로 올수록 심화됨을 알 수 있다.

(8) 더으다 : ① 더하다, 加하다 ② 이롭다

① 더하다, 加하다

點 더우믈 혼 가지로디 (加點同) (訓諺)

漸漸 더어 (漸增) (楞 6:2)

福이 또 더어 (法 6:10)

② 이롭다, 낫다

19) 가뜩이나 늦었는데 길까지 막히다니, 일이 더럽게 돼 가는군. {새 우리말 큰 사전}

너희 一心으로 法을 流布하야 너비 더으게 하라(月釋 18:15)

사름과로 싸호며 티면 해호요미 잇고 더을 이리 업느니 (與人鬪歎 有害而無益) (警民 10)

골픈 제 혼입 어더 머구미 브른 제 혼 말 어듬도곤 더으니(飢時得一口 強如飽時得一斗) (翻老 上 43)

‘더으다>더하다>더하다’의 변화를 겪은 이 말은 主義 ‘加, 添, 增’의 뜻에서 轉移되어 ‘益, 勝’의 뜻으로까지 意味가 擴張하여 後期中世國語에 쓰였으나, 現代國語에서는 後者の 뜻으로는 쓰이지 않고 漢字 訓에서나 흔적을 볼수 있다. 더할 익: 益.

(9) 도르혀다, 도로혀다: ① 돌리다 ② 돌이키다

① 돌리다(回轉)

머리를 도로혀 큰 아득을 마르초니(迴頭指大男) (杜初 15:42)

龍이 이퍼서 머리를 도르혀 보느니(龍吟回其頭) (杜初 22:36)

머리 도르혀(迴首) (楞 1:110)

② 돌이키다(回顧)

어젯 밤비 북풍과 비 불로불 도르혀 스랑호니(反思前夜風雨急乃) (杜初 16:30)

머리 도르혀서 朝廷스班列을 스키노라 (回首想朝班) (杜初 7:17)

이 말은 ‘도르혀다>도르혀다>도로혀다>돌이키다’의 변천과정을 겪은 것인데, ‘돌[回]-스[引]’의 造語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中世國語에 ‘回轉’의 의미와 함께 ‘回顧’의 의미가 쓰였는데 現在는 抽象化한 後者の 의미가 훨씬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한편 ‘도르혀다’는 副詞 ‘도르혀’로 轉成되어 ‘반대되거나 다르게’[反亦]의 의미로 쓰였는데 이는 ‘도르혀>도르혀>도로혀>도리어’의 변천과정을 거쳤다.

IV. 語義變化 與否

本章에서는 後期中世國語에 쓰였던 語彙가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를 살펴보는 바, Ⅲ장에서 다루었던 25개 語彙를 대상으로 한다. 수많은 中世國語 語彙 중에서 25개 語彙만을 대상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滄海一粟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만한 語彙만을 가지고 語義變化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만을 가지고도 語義變化의 傾向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다.

1. 語形이 消滅된 것.

말의 形態가 완전히 消滅되어 사라진 것을 이르는데 이 語彙가 消滅되면서 漢字語로 代替된 것, 다른 固有語로 代替되거나 統合된 것 등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1) 다른 固有語로 代替되거나 統合된 것.

나조>저녁

돕다>잠그다

뵈다>사랑하다

(2) 漢字語로 代替된 것.

너름>農事

늬 >世上. 歲月

2. 一部 意味變化가 있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語彙는 語形이 音韻變化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 語形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語例의 形態變化와 喪失된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겉→겉 : 껍질
- 그릇→그릇 : 器具(세간)
- 날→날 : 태양
- 낫다→나아가다 : 증정
- 녹다→녹다 : 이해하다
- 드리다→데리다 : 더불다
- 뻘리다→매리다(의미가 완전히 변함)
- 다스리다→다스리다 : 다듬다
- 닷기다→뒹다 : 불리다
- 더블다→더블다 : 데리다
- 더으다→더하다 : 이롭다
- 되다→되다 : 빠르다, 높다
- 암→암 : 여자, 아내
- 중싱→중생 : 짐승

3. 意味變化가 없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後期中世國語에 있는 多義性 意味가 喪失되지 않고 現在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意味는 더 추가될 수 있는 것들이다.

(1) 意味가 더 추가되지 않은 것.

너르다, 넓다

(2) 意味가 더 추가된 것

더럽다 : '어렵고 고약하다'의 의미가 추가

도르혀다 : '[잃었던 상태나 불리한 형세를] 도로 자기의 것으로 하거나 이

전의 상태로 되게하다. 예) 건강을 돌이키다²⁰⁾

스승 : 사회의 다양화, 직업의 分業化로 스승의 대상이 넓어졌다.

이상 1, 2, 3을 살펴볼 때 25개 語彙 중 5개의 語彙만이 意味가 변하지 않은 채 現在까지 유지되고 있고 나머지 5개는 語形이 消滅되고, 15개는 意味의 부분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것을 볼 때 語彙는 固定되지 않고 심한 변화가 생김을 알 수 있다.

V. 結 論

지금까지 後期中世國語 多義語라고 생각되는 25개 語彙를 가지고 그것들의 多義 發生原因과 語彙變化를 살펴보았는데, 본고에서 한정된 語彙資料만을 가지고 고찰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면서 結論에 임한다.

〈多義 發生原因〉

(1) 適用上の 轉移

것, 그스기, 나조, 날, 낫다, 녀름(짓다), 뉘, 드리다, 빠리다, 다스리다, 더블다, 되다.

(2) 어떤 社會環境에서의 特殊化

니르다, 스승, 암, 중성

(3) 比喩(隱喩)

그릇, 늑다, 낚다, 돕다, 뜻다, 탁기다, 더럽다, 더으다, 도르허다

〈語義變化 與否〉

(1) 語形이 消滅된 것.

20) 그러나, '도르허다'는 '[경과한 일을] 다시금 생각하다'의 意味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조, 녀름, 뉘, 돕다, 토다

(2) 一部 意味變化가 있는 것.

것, 그릇, 그스기, 날, 낫다, 녹다, 드리다, 뿌리다, 다스리다, 닳기다.
더블다, 더으다, 되다, 암, 중싱

(3) 意味變化가 없는 것.

① 의미가 더 추가되지 않은 것 : 니르다, 낚다.

② 의미가 더 추가된 것 : 더럽다, 도르혀다, 스승

參考文獻

- 金亨奎(1975), 國語史概要, 一潮閣.
- 南廣祐(1962), “古代國語 造語法の 한 考察” 國語學論文集, 中央大出版部.
- 南星祐(1973), 後期中世國語의 多義, 國語研究 22, 國語研究會.
- 成換甲(1988), “意味의 具象化와 抽象化” 柳穆相박사 華甲論叢, 中央大出版部.
- 沈在箕의(1984), 意味論 序說, 集文堂.
- 梁柱東(1960), 古歌研究, 博文書館.
- 趙恒範(1984), “國語類義語의 通時的 考察” 國語研究 58, 國語研究會.
- 崔昌烈의(1986), 國語意味論, 開文社.
- 許 雄(1968), 言語學概論, 正音社.
- Stephen Ullmann, *The Principles of Semantics*, 南星祐譯(1981), 意味論의 原理, 塔出版社.
- Stephen Ullmann, *Semantics*, 南星祐譯(1987), 意味論, 塔出版社.